



# “생계위해 복귀하지만 두려움 여전”

#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효과’ 사업 완료구간 21개소 교통사고 ‘제로’

학교비정규직노조 18일 급식소 감량기 철거 촉구 회견 최근 4년 사이 사고 6건 발생... 손가락 접합 모두 실패 “사고 원인은 노동자 부주의보단 높은 노동 강도 때문”

지난달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기(이하 감량기)를 다루다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가 결국 접합에 실패했다. 4년 사이 급식소 감량기 사고에 의해 잘린 손가락 9개 모두가 접합에 실패한 것이다.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이하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도내 한 학교 급식소에서 감량기 사고를 당해 오른손 중지가 잘린 조리실사 A씨의 접합수술이 최근 실패로 끝났다. 제주에서 감량기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의 접합률은 0%다. 이번 사고를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대부분 음식물을 분쇄하는 곳에 손이 깔려 들어가 훼손이 심했기 때문이다. 현은정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직국장은 “A씨는 학교 가는 게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호소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오는 3월 학교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며 “A씨 말고도 감량기 사고를 당한 노동자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이 잘린 현상으로 복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감량기를 작동시켜 보고, 주의를 당부하며 사진도 촬영했다”며 “또 1명이 다루던 감량기를 2명이 다루도록 조치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량기 철거를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하지만 전정터 같은 급식소에서 인원을 다른 곳으로 빼버리면 그만큼 다른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심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량기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량기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의 부주의도, 안전교육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감량기 사용으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조개개경과 사용연한 핑계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월 신학기가 되면 또 다시 급식실은 정진 없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감량기도 다시 돌아간다”며 “도교육청은 감량기 뿐만 아니라 급식소 내 산재사고가 다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 코로나 확진 외부요인 잇따라

18일 11명 추가... 8명 감염 이유 ‘제주 밖’

제주에서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 입국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5시 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들어선 250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65명이 확진됐다.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71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타지역 관련 4명, 해외입국자 4명, 코로나19 유증상자 1명 등이다. 또 이날 오미크론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오미크론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제주지역 백신 접종률은 이날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완료율 84.2%, 3차 접종률 44.0%다. 강대해기자

## 오토바이 전도 운전자 숨져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18일 제주소방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28분쯤 제주도 화북2동 거로서거리 동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60)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대해기자



겨울 해수욕장 이색 풍경 18일 제주도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수상 레포츠인인 새로운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강대해기자

보호구역내 사고도 감소세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9년 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 도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18건, 2020년 11건, 지난해 7건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21개소)에서는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자치경찰

## 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5배 ↑

향소심 1000만원→5000만원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향소심 재판장인 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는 의료행위 중에 이뤄진 사실이 명백하다”며 “또 피해자들의 발을 밟고 꼬집고, 등을 때린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향소심에서 오히려 벌금 액수가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욱 부장판사)는 18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44·여)씨의 향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벌금 액수가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소개 1인당 4만원 꿀꺽... 벌금형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건설 현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4만원씩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

한민국으로 귀화한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일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를 제주도 환경면 소재 공사장에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당 16만원 중 4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등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총 25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25명을 소개 받아 건설 현장에 취업시킨 건설사 관계자 A(44)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은범기자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묘목

####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값 많은 견학바랍니다.

|                 |                       |
|-----------------|-----------------------|
| ·유라조생 1, 2년생    | ·하갈 4, 8년생            |
| ·천혜향 1, 4년생     | ·궁천 3, 5, 8년생         |
| ·레드향(무독) 1, 4년생 | ·궁천 변이지(오하라베니) 2, 3년생 |
| ·하례조생 3년생       | ·레몬 3년생               |
| ·고림조생 5년생       | ·황금향 1, 4년생           |
| ·한라봉 1, 2년생     | ·그외 다수품종              |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진땀 흘려서 생산된 품종상 พัน지 ▶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우도록 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진땀의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계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도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도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